

한미 정상 “조기에 비핵화 협상 재개”

문 대통령 “트럼프 트윗, 北 긍정적 방향 견인 결정적 역할”

트럼프 “韓 인도적 차원 대북 식량 제공 매우 시의적절”

한미 정상 “트럼프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긴밀 협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10시부터 10시35분까지 3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靑 “대북 식량 지원, 이제 검토 단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전화 통화에서 논의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떤 종류의 품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배경에 대해 “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서 북한 식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것을 보면 현재 북한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며 “그 정도로 우리도 (미국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량 지원의 규모나 형식에 등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가지 않았고 국내 절차 등은 처음 이야기 드렸듯 검토 논의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이라는 질문에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해당 부처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식량 지원 문제를 먼저 언급했는 가라는 질문에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인 사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식량 지원 문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하고 ‘A-B-A-B’로 갔다기보다,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었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이혜찬 대표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손을 들고 있다.

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직 사퇴... 15일 새 원내 선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미움의 상처, 당 어려움을 모두 책임지고 다음 주 수요일(15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다음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임기를 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오후 2시께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전체가 서로 가진 오해 불신을 해소하고 오늘 새로운 결의를 한 자리”라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바른미



당 소속 의원 전체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당내 갈등을 마무리하고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라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 선거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당당히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민주 새 원내대표에 ‘86그룹’ 이인영 의원

김태년 의원과 2차 결선서 125표 중 76표 획득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에 3선의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투표수 125표 중 76표를 획득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이 의원과 함께 결선에 오른 김태년 의원은 2차 결선투표에서 49표를 얻는 데 그쳐 27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앞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25명 중 이 의원이 54표, 김 의원이 37표를 얻어 결선에 올랐다. 노웅래 의원은 34표를 얻어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86그룹’ (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로 꼽힌다.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와 당내 정책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의 지지를 받았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여야 4당 “노인복지 힘쓸 것”

어버이날 논평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여야 4당은 논평을 내 “편한 어버이 세대의 노후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효도하는 정부 여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새긴다”며 “효도하는 국가, 효도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복지 향상, 치매 국가 책임제, 어르신을 위한 사회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확대. 문재인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들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욱 폭넓고 효율적인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효의 실천은 사회를 유지하는 건강한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어버이에게 ‘사회적 효’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어버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인 일자리 육성, 생활안정보장, 노인복지 정책의 대대적 개편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확립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제 손 잡아주세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시를 바치겠다”고 마무리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자식 키우고 국가 경제 일으키느라 고생하신 어버이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어버이들의 삶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며 “지금의 복지 혜택이 부족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장 서 어버이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말뿐인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까지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확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 어버이들의 삶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민주당 입당

정읍·고창 출마 시사



‘서울시 최고 교통 전문가’로 불리던 윤준병 전 행정부시장이 8일 “해결사 윤준병,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읍·고창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윤 전 부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으로 새 출발의 각오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면서 지켜온 두 가지 소신이 있다. 하나는 공평무사, 다른 하나는 불의에 맞서기 위해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몇 차례 권유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며 “사랑하는 고창, 정읍과 고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정읍·고창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역구다.

그는 “정읍·고창은 교통의 거점이자 아름다운 곳이 많아 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그 가능성이, 그 미래가 저의 가슴을 다시 요동치게 했다”며 “저의 행정 경험을 살려 정읍·고창의 새 시대를 열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읍에서 이루지 못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겠다. 전북의 발전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돕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해 지역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961년 전북 정읍 출신인 윤 전 부시장은 전주교과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도청·서울시대중교통과장·교통기획과장·서울 관악구 부구청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거친 뒤 행정부시장까지 맡았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